

전북혁신도시 인구증가 빨라

2만1,056명 편입 전국서 가장 많이 증가... 지방세는 유일하게 급감

전북혁신도시 주민수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가운데 주민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혁신도시로 총 2만1,056명이 편입됐다.

이는 2030년 계획인구 2만3,000명의 73% 수준이며 전국 평균 38%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한국식품연구원을 제외한 11개 정부기관이 입주한 상태다.

이들 공공기관 이주로 완주군 이서면이 전북혁신도시 조성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서면 인구가 도내

면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은 1만4,826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에만 이서면에 동지를 둔 인구는 총 4천282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6,200여명에 머물렀던 이서면 인구는 2014년 9월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만5,000여명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입주로 주민 수가 급격히 불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전북혁신도시 지방소득세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폭 떨어졌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 지방세 수입은 75억1,800여만 원에서 2014년 500억 7,300여만 원으로 무려 566.0%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288억 1,300여만 원으로 40.4%가 급감했다.

지방세 급감 이유는 혁신도시 조

개발에 따른 부동산 경기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경우 전북혁신도시가 조기에 개발된 가운데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의 매매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지방세 수입은 2014년 정점에 다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안제 채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안제 채용은 총 512명 가운데 75명으로 14.6%의 비율을 보였다.

2014년 10.7%보다 늘어난 비율이다. 또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가 타 혁신도시에 비해 개발이 빨라지다 보니 취업특례 비중이 큰 지방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상의,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실시

전주상공회의소는 4일 전주 남부시장 일원에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공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박영자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계수용품 구입과 선물준비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가두 캠페인과 장보기를 한

몰품 전부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해 물품도 구입하고 불우이웃들에게도 나눠 주는 등 각 기관 단체와 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도민 모두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29일까지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를 신청접수 받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는 창업 7년 이하,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연간 총 2회(2월, 6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며,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 창업 3년 초과~7년 이하 기업은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성 지표에 고용 수출 관련 평가지표를 10%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9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a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43)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JB금융그룹, 작년 4분기 순이익 357억·누적 1,509억

전년도말 부의영업권 제외 전년대비 47.5% 증가

JB금융그룹(회장 김한)은 2015년도 공시기준(잠정) 연간 당기순이익을 1,509억원(4분기 357억원)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말 부의영업권(5천65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JB금융그룹의 2015년도 실적의 주요 특징은 첫째, 견실한 대졸성장으로 이차이익 기반이 강화됨과 동시에 비이자이익 역시 비용절감 노력 등이 반영돼 개선됐고, 둘째, 3분기 특별명예퇴직 시행으로 일시 증가했던 판관비도 안정화됐으며 셋째, 자산건전성 개선과 대손비용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북은행은 작년부터 경영전략 방향을 '내실성장'으로 정하고 성장보다는 비용절감,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비이자이익 개선과 건전성 지표 안정화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4.2% 증가한 514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광주은행은 일회성 요인에 따른 수익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력이 가시화되고 대손비용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년대비 11.0% 늘어난 57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전문여전사인 JB우리카페탈은 견실한 자산성장을 통한 시장 점유율 유지와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전년대비 100%를 초과하는 612억원을 달성했다.

은행의 핵심이익 지표인 그룹(은행) 분기중 NIM(순이자마진)은 전분기대비 0.02%p 하락한 2.25%(전북은행은 2.36%, 광주은행 2.16%)를 유지했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고정아이하비율과 연체비율이 전분기대비 각각 0.20%p, 0.13%p 하락한 1.27%와 1.19%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대손비용률(Credit Cost) 역시 영업이익 증가와 충당금전입액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3%p 하락한 0.50%(전북은행 0.67%, 광주은행 0.24%)를 기록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캐피탈의 이익 신장 가시화와 함께 은행의 자산성장이 가계, 기업 등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특히 거액부실여신 및 인력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 및 인력구조의 효율화로 수익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차별화된 사업전략과 강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개선 추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창조경제센터 추천기업 금융지원 협약

신보-금융회사-창조센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4일 전국 19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BK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성과 창의성을 보유하고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추천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범정부연계와 별도로 특별출연을 하고 신보는 대상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추천기업 등에 5년간 최대 3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신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5년간 보

조료율을 0.2%p 차감해주고 보증비용을 우대하기로 했으며, 업력 5년 이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은행에서 보증료 일부 지원 및 최대 1.0%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한편, 신보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신용보환, 투자 컨설팅 등 전사적 차원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신보에서 보증기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추천하는 쌍방향 추천제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장선도형 창업기업인 퍼스트랭크형 기업을 공동발굴하고 혁신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신보 추천기업에 대한 멘토링,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법무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제공하게 된다. /정영수 기자

김제 용지,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전북 김제 용지보호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해제됐다.

4일 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의 구제역 농가를 중심으로 3km 이내의 보호지역에 대해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구제역 확산 우려가 없

어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생농장은 축사내 분변처리·세척·소독 상태에 대한 엄격한 방역 실태 점검을 받게 되고 30일 이상의 휴지기 이후 입식이 허용된다. 또한 도는 2개월 동안 입식가족에 대한 입

상검사 이상 유무를 가족방역관이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에 김제 용지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나, 아직 고창 무장지역 이동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설이 다가옴에 따라 사람 방문, 차량이동 등에 따른 전파위험이 높다"면서 "거점소독시설 및 소독통제 초소 운영 등 차단방역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전북은행,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3억 구입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4일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3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구입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여원의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지켜내지 못하면 전북경제도 희망이 없다는 판단으로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대책 마련으로 도내 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이스타항공, 설 기내 이벤트 행사

이스타항공은 8일 국내선 국제선 항공기 기내에서 객실승무원들의 다양한 기내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선은 3시~5시 사이 일부 항공편 기내에서 퀴즈이벤트를 통해 뽑은 고객이 이스타항공 로고상품을 증정하며, 원송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관련 선물도 함께 제공한다.

국제선은 8일 당일 인천-방콕(ZE515편), 인천-코타키나발루(ZE501편), 인천-세이렘(ZE521편), 인천-푸엣(ZE531편) 탑승편 승객 모두에게 복(福)스터키가 부착된 약과를 제공하며, 2016년을 맞아 각 편당 16명의 승객들에게 기내이벤트를 통해 딱딱과 프로폴리스 제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또한 8일 오후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이벤트팀(ET)이 탑승하는 인천-방콕(ZE511)편에서는 인간 율농이 게임 및 경품제공 행사를 진행하여 설날 분위기를 항공기 기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건설협회 성금 2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설을 맞아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성금 2,000만원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정대영 회장은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함께 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계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